

4 할례받지 않은 디도

가 되었다는 사실을 존중합니다.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도'의 사건입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갈2:4)

가만히, 몰래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을 볼 때 이들에게 사도의 직분이나 지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거짓형제들, 거짓신도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갈2:5)

그러나 놀랍게도 '디도'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교회의 유력자들과 지도자들이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복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게 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의 '복음'을 확증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할례를 요구받지 않은 디도의 사건은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 자신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하나됨과의 약속입니다 (창 17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갔을 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만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공격은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인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했습니다. 거기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갈2:5)

5 자유와 진리

'자유'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갈5:1)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유와 함께 또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갈2:5).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진리가 있기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놓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죄책감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율법에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끝없는 회개와 끝없는 율법 준수, 죄의 결벽증 속에서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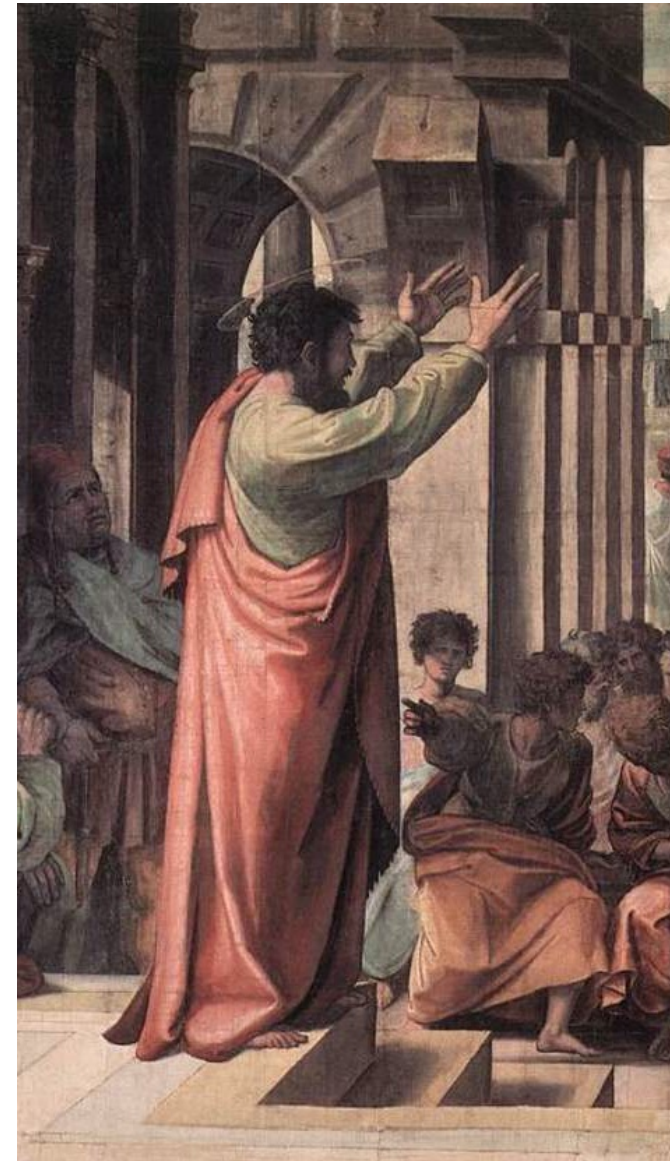
[최진영 목사]

www.weppc.net 홈페이지에서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강해(4)

Galatians 2:1-5

지난주 수요성경강해 2022년 7월 27일 (수)
파사데나장로교회



1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관계의 여러 전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동역자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바나바는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받았지만, 사람들을 풀어주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의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놓고 그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소중하게 여겼고, 안디옥 교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도록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태생으로 유대인 레위지파 사람이었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별칭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아랍어 이름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 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행 4:36-37, 새번역)

[키프로스(구레네: Cyprus)는 그리스, 터키, 이집트의 한 가운데 있는 지역으로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문명의 중간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바나바 역시 유대인이며 레위지파였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행 11:22)

안디옥 지역에 유대인 뿐 아니라 헬라인(그리스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 디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도바울이 다소 지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갑니다. 그는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을 알았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임을 알고 안디옥 교회에 초청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두 인물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었고, 교회가 굳건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사이는 이걸 행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십사 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갈 2:1)

디도는 안디옥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만난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였습니다. 디도와 바나바는 모두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다름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교회가 이방인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교회는 안디옥교회를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예루살렘교회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를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갈 2:2)

예루살렘교회 사람들은 당시 훨씬 보수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관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바울은

3 거짓형제들

그들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지도자들)에게는 따로 자세히 설명도 합니다.

사실, 이 두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방문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기독교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방문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바로 그 순간 기독교란 종교는 두가지 종교로 갈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그리스도 교회'와 '이방인-그리스도교 교회'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여전히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 민족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설득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보이지 않은 주인공 중 하나인 '거짓신도들(거짓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 없이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교회의 '교사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거짓신도들이라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거짓형제들 때문에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고생을 했는지, 바울은 자신이 핍박을 받았던 리스트에 이 거짓형제들로부터의 고난을 적기도 했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고후 11:26)

그러나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과 유력한 지도자들은 바울의 복음에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 이방인의 사도